



소개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 &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

새롭게 해석한 두 가지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탁월한 수준의 정교한 장식 예술

주요 특징:

- **에나멜 기법:** 새로운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의 클락 다이얼과 장식 패널에 적용된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은 230 시간의 작업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 **목재 상감 세공 기법:** 두께가 단 0.6mm 에 불과한 52 개의 나무 조각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커팅한 다음 색을 입히고 래커 처리한 후,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의 패널에 섬세하게 적용했습니다.
- **정확한 천체 표현:** 레귤레이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며, 에트모스 칼리버 582 는 3,821 년 동안 오차 없이 문페이즈와 캘린더를 표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칼리버 582 의 두 가지 새로운 예술적 해석을 선보이며, 투명한 글라스 캐비닛 안에 무브먼트를 배치하고 양쪽에 강렬한 장식 패널을 더했습니다. 이 새로운 클락들은 서로 다른 전통 공예 기법과 창의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데, 오랜 시간 정밀한 시간 측정을 추구하며 발전해 온 메종의 특징입니다.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에는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완성된 꽃과 별새가 장식되어 있으며,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는 목재 인레이로 구현한 강렬한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클락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2026 년 4 월 21 일부터 26 일까지 밀라노에서 메종이 개최하는 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술로 승화된 시간

1928년의 비전으로 구현된 영원한 힘: 1928년 스위스 엔지니어 장 레옹 휘테가 발명한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컨셉을 기반으로 르쿨트르 & 씨(현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독특한 메커니즘 덕분에, 애트모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별도의 와인딩이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효율성을 갖춘 클락: '공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클락'으로 알려진 애트모스는 주변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서 에너지를 얻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밸런스 휠을 움직입니다. 핵심은 밀봉된 가스 캡슐에 있으며, 얇은 멤브레인을 통해 태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기체의 부피가 변하면서 멤브레인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작동하며 태엽을 감고, 그 결과 극소량의 에너지로도 밸런스 휠이 1분에 한 번씩 왕복 진동하게 됩니다. 섭씨 1도의 온도 변화만으로 클락을 약 이틀간 작동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극히 적어 15와트 백열 전구 하나가 사용하는 에너지만으로도 무려 6천만 개의 애트모스 클락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로 거듭나는 메커니즘: 애트모스의 구조는 그 자체로 디자인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글라스 캐비닛을 통해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는 초기부터 정체성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부터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애트모스는 자연스럽게 예술적 표현을 위한 케이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디자이너를 비롯해 1934년에 처음 도입된 에나멜 및 *상감 세공*과 같은 전통 공예 장인들과 협업하며 애트모스를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해왔습니다. 이는 앰브롤라이트, 울 글라스 구조, 래커 작업, 보석 세팅 등 여러 소재와 기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구적인 동작을 위해 설계된 컴플리케이션: 애트모스 메커니즘의 특성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타임키퍼링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뉴팩처는 수십 년에 걸쳐 클락의 성능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992년 엔지니어들은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를 갖춘 최초의 애트모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캘린더, 천체도, 군시차, 일출 및 일몰 시간, 레귤레이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손꼽히는 텔루리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칼리버 582: 3,821 년간 정확성을 유지하는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칼리버 582 는 예거 르쿨트르의 다른 칼리버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상,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정밀함을 추구하는 메종의 철학에 따라, 애틀모스 레귤레이터는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과학적 클락의 계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입니다. 클락 및 워치메이킹 역사에서 레귤레이터 디자인은 단순히 미적 목적이 아닌 고도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레귤레이터는 시와 분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어 더 작은 시간 단위를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종 다른 장비의 시간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의 전통을 이어,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의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는 무려 3,821 년이 지나야 천문학적으로 실제 달과 단 하루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탁월한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애틀모스 칼리버 582 의 디자인은 원 안의 원 구조를 기반으로, 동심원 형태의 인디케이터를 층층이 쌓아 정보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큰 미닛 링이 전체 구조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아워 링, 24 시간 링, 그리고 월간 캘린더와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원형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룹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된 세 개의 커다란 오픈워크 가이드 롤러는 디스플레이의 대칭 구조를 강조합니다. 메커니즘 중심선 좌우의 아치 모양 브릿지에 부착된 두 개의 측면 롤러는 24 시간 링을 지탱하며, 12 시 방향에 위치한 안정화 롤러는 위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예술적인 장인 정신을 향한 찬사

리미티드 에디션: 단 3 피스만 제작되는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는 별새와 벚꽃, 수국을 우아하게 표현하여 대자연의 식물과 동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과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적 노^h우를 조명합니다.

위대한 장인 기술의 정수: 다이얼과 패널에만 총 45 회의 그랑 퓨 에나멜 소성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다이얼에 15 겹, 두 개의 패널에 각각 15 겹). 각각의 소성 공정은 항상 파손의 위험이 동반되었고, 자칫하면 전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니어처 페인팅은 일반적으로 손목시계의 아주 작은 표면에 적용되는 기법이므로, 크기가 각각 196mm x 105.2mm 에 이르는 장식 패널에 이 기법을 구현하는 작업은 상당한 기술적·예술적 난제를 안겨주었고, 에나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상당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원하는 에나멜 색상을 얻고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섭씨 800 도 이상의 반복적인 소성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베이스 소재로 스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패널 뒷면에는 *콩트르 에나멜*(contre-émail) 층을 입혀, 앞면에 여러 겹으로 도포될 다크 그린 에나멜로 인해 발생할 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넓은 패널 표면을 위해 에나멜 장인은 '드라이 에나멜링' 기법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가루 형태의 안료를 체로 뿌려 마치 케이크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듯 표면에 얇게 덮는 방식으로, 원하는 깊이감과 균일한 그린 컬러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든 층이 마무리되면, 패널을 가열 및 냉각하여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포, 균열 또는 먼지 티끌이 생길 위험이 있어 작업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경이 완성되면 미니어처 페인팅 장인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술적 감각과 절대적 정밀함이라는 상반된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지고, 각 층마다 소성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때마다 이전에 진행된 모든 작업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수없이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력을 증명해 보입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시간: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완성된 이미지는 왼쪽 패널의 풍성한 꽃무늬에서 시작해 에나멜 미닛 링을 지나, 세 마리의 벌새가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반대편 패널까지 유려하게 이어집니다. 아워 및 미닛 링은 실버 베이스를 파내어 얇은 홈을 만든 뒤 여러 겹의 에나멜을 채우고, 층마다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컬러의 깊이와 풍성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에나멜 장인은 꽃의 디테일을 그리는 미니어처 페인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금박 조각을 정교한 모양으로 세밀하게 잘라 제자리에 배치한 뒤 반투명 에나멜을 여러 겹 덧입히는 에나멜 기술인 금박 파요네 기법을 사용해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도트 마커를 추가합니다.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의 장식 에나멜 기법에는 총 230 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목재 인레이 기법: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는 유서 깊은 목재 *상감 세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장식 예술 기법은 17 세기 후반,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장인들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앙드레 샤를 불(André-Charles Boulle)로, 그의 작품은 목재에



별갑, 브라스 등 다른 소재를 결합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프랑스 왕궁을 위해 제작한 작품들은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내로 완성된 유서 깊은 기법: 애틀모스 클락의 장식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메탈 베이스를 파내어 무한한 깊이감을 주는 *트롱프뤼유* 효과로 원하는 패턴을 구현했습니다. 이때 남겨진 섬세한 직선 형태의 '립' 디테일은 로둠 도금 처리되어 목재 인레이로 연출한 기하학적인 패턴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 도전 과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결을 지닌 매력적인 목재 베니어(주로 호두나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완성하는 데 총 50 시간이 걸린 이 공정에서 장미 꽃잎만큼 얇은 최대 0.6mm 두께의 미세한 목재 베니어 조각 52 개를 마이크론 단위까지 정확하게 잘라 미리 준비해 둔 공간에 빈틈없이 끼워 넣었으며, 이후 라이트 그레이 블루부터 스카이 블루, 딥 오션 블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블루 톤을 수작업으로 입혔습니다. 목재 인레이로 패턴을 완성하면, 표면에 광택제 작업과 폴리싱 처리를 거쳐, 애틀모스가 탄생한 아르데코 시대의 정취를 반영한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환상적인 기하학적 유희: *상감 세공*으로 구현된 블루 톤은 다이얼 디스플레이와 조화를 이룹니다. 라지 미닛 레지스터는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했고, 로둠 도금 아플리케 인덱스는 5 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워 레지스터에서는 컬러 팔레트가 반전되어, 블루 래커 처리한 인덱스와 반짝이는 로둠 도금 디테일이 실버 오팔린 배경과 대비를 이룹니다. 문페이즈 디스플레이 또한 이를 이어 블루 래커 처리한 하늘 배경에 *아주라지* 장식으로 섬세하게 질감을 살린 '구름' 뒤 폴리싱 처리한 달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는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됩니다.

애틀모스는 단순히 공기로 작동하는 경이로운 타임피스를 넘어,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술적 및 예술적 독창성을 사랑하는 이들을 매료시켜 온 *예술 작품*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두 가지 클락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애틀모스의 전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상세 정보

애틀모스 레귤레이터 에나멜 콜리브리

케이스: 전체 크기 가로 468mm x 세로 183mm x 너비 255mm

패널 크기: 196mm x 105.2mm

칼리버: 기계식 퍼페추얼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기능: 레귤레이터 유형의 시와 분 디스플레이, 24 시간 인디케이터, 월 인디케이터, 퍼페추얼 문페이스 인디케이터(3,861 년마다 하루 오차)

부품 수: 386 개

주열 수: 30 개

다이얼: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금박 파요네 아워 및 미닛 마커, 블랙 래커 처리한 핸즈, 문페이스 디스플레이

캐비닛: 내부 글라스 캐비닛,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퓨 에나멜 디테일의 외부 장식 패널, 로둠 도금 디테일의 PVD 코팅 베이스 및 받침

레퍼런스: Q5604305

3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에트모스 레귤레이터 우드 마케트리

케이스: 전체 크기 가로 468mm x 세로 183mm x 너비 255mm

패널 크기: 196mm x 105.2mm

칼리버: 기계식 퍼페추얼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82

기능: 레귤레이터 유형의 시와 분 디스플레이, 24 시간 인디케이터, 월 인디케이터, 퍼페추얼 문페이스 인디케이터(3,861 년마다 하루 오차)

다이얼: 미닛 링: 블루 래커, 로둠 도금 아플리케 인덱스, 아워 링: 오팔린, 블루 래커 처리한 아플리케 인덱스, 핸즈: 블루 래커

캐비닛: 내부 글라스 캐비닛, 목재 상감 세공 인레이 디테일의 로둠 도금 외부 장식 패널, 브러싱 및 새틴 폴리싱 처리한 로둠 도금 베이스 및 받침

레퍼런스: Q5556304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애틀모스 소개

1928 년에 탄생한 애틀모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여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입니다. 애틀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으로 구동됩니다. 섭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를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해 왔으며, 마침내 애틀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라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애틀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